AI 융합 지역 특화·에너지 효율화 사업 나선다

광주시 공모 선정 국비 62억 확보
지역전략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업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확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시가 정부 지원을 받아 AI 융합 지역 특화·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나선다.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과 'AI융합 에너지효율화사업' 신규과제 공모사업에 각각 선정돼 2023년까지 2년간 국비 62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AI 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은 지역특화산업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인공지능 전문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주관기관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역 인공지능 기업 6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역 수요기업 5곳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초기 사업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헬스케어분야 지역 기업에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활용해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 등 10개 솔루션을 개발·적용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기업 생산성을 7% 이상 높이고,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 실증랩을 구축해 지역 기업이 다양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년간 국비 37억원을 포함 총 67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선정된 'AI융합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국가 산업단지의 제조공장을 발굴하고 인공지능 전문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수집, 인공지능 활용 설비 운영 최적화 및 에너지 소비절감 등 수요공장에서 소모하는 에너지 효율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에너지분야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지역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에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특히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에너지 효율화 알고리즘 개발 및 모델 실증을 위한 인프라(고성능 컴퓨팅 자원, 스토리지 등) 지원과 수집된 데이터(Data)를 활용해 관련 기업의 사업화에도 기여한다.

총 사업비 31억원(국비 25억원, 민자 6억원)을 투입해 광주첨단(5개 기업) 등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전력소비·설비운영 최적화 및 AI모델 개발' 등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률 10%를 달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 지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내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을 통해 인공지능 융합 제품화 및 서비스 개발 등 기업 지원을 활성화해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과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정책과장은 "지역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AI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20명…6월2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는 "관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으로, 실무형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중심의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산업입지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2022년 지역혁신프로젝트 산업지능화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게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며, 광주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로 취업하고 싶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사업 수행은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맡으며, 6월2일 오후 6시까지 교육생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 미취업자(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로 취업 준비생과 창업 희망자인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0명을 선발한다.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분야 대학 졸업(예정)자는 우대 혜택이 있다. 교육은 6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1일 5시간씩 총 300시간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핵심교육과정 ▲인공지능 실무교육과정 ▲역량강화 ▲참여기업과 함께하는 인공지능 협업 프로젝트 진행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비 및 교재는 전액 지원된다. 교육수료 후에는 광주시 내 인공지능 관련분야 업계로 취업하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062-364-9168)로 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도시철도 '씽아와 사진찍기' 어린이날 이벤트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윤진보)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 등을 맞아 역세권 인근 어린이집들을 방문해 '유아전용 교통카드' 증정과 '씽아와 사진찍기 이벤트' 등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日 센다이시 자매도시 20주년 사진전

10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

광주시가 일본 센다이시와 자매도시 체결 2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화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일본 센다이시와 자매도시 체결 2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사진〉를 10일까지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2002년 광주시와 센다이시 자매결연 체결식, 자매결연 기념행사, 양 도시 주요 축제 참가, 청소년 교류 등 양 도시의 교류행사를 중심으로 사진 45점이 전시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는 광주송정역에서도 전시회를 연다.

그동안 광주와 센다이는 자매결연 10주년과 15주년 기념행사를 양 도시에서 개최했다. 특히 센다이시는 광주시 김치축제, 비엔날레, 충장축제 등에 참가하고 광주시는 센다이의 빛의 축제, 센다이국제마라톤 대회 등에 참가하는 등 양 도시 주요 행사에 상호 방문해 우의를 다졌다.

특히 광주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시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구호품과 성금 등을 전달하는 등 우호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에서도 청소년 민박, 광주시 축구단 센다이 방문, 광주 금호고와 센다이시 동북학원고 교류 등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다. 올해는 20주년을 맞아 광주-센다이 교류활동 전시회에 이어, 10월과 12월 양 도시 대표단, 공연단 상호 방문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광주시 수리비·부품교체 지원

광주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은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활동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체와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은 수리비의 50%를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시 조례 제정을 통해 2010년부터 매년 600명에게 보장구 수리사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광주시지체장애인협회 보장구수리센터는 올해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발광다이오드(LED) 비상경고판 부착 지원 사업도 함께 한다. 이 사업은 올해 시민제안으로 선정돼 야간 시야 확보 등 교통안전에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한다.

부착을 희망하는 광주시 거주 등록장애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보장구수리센터에서 무상으로 발광다이오드(LED) 경고판을 부착해준다.

송숙란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보장구 수리지원사업과 발광다이오드(LED)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눈높이를 고려한 복지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온가족 함께 'FUN한 광주! 31일까지 가정의 달 이벤트

광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FUN한 광주!'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펀(FUN) 시티 광주!와 연계해 문화·관광·놀이 장소를 공유하는 시민 참여형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알리기 세 번째 행사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알리기 위해 광주시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이 함께 추진한다.

이달 중 아이와 함께 과학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공연장, 놀이공원, 5·18유적지 등 지역 문화·관광 장소를 방문하고, 탐방사진과 후기를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www.광주아이키움.kr) 소통방 '가족과 함께하는 FUN한 광주! 이벤트'에 게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150가정에 아이스크림 쿠폰을 지급한다.

또 오는 21일에는 아빠 육아 참여 인식개선을 위해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광주아이키움, 도전! 아빠 육아 골든벨' 대회도 연다.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15일까지 참가자 50명을 모집한다. 모든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1등에겐 외식 상품권을 증정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그린알로에
그린궁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宮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착색료 ★ 감미료 無 합성향료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